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중국과 미국産 대두 수입 논의 계획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연내 추가 금리인하 지지. 노동시장 동향 주목
 - 중국 국경절 연휴 여행지출, 전년비 증가. 다만 일부 세부 항목은 다소 부진
 - 일본 자민당 총재, 엔低는 수출기업에 도움. 다만 과도한 엔低 유도는 반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방정부 섰다운 장기화 우려, 증시 차익매물 출회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거품 논란 속 차익매물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관련주(HSBC 등) 약세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일본은행의 정책 완화 가능성,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6%, 0.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예상보다 저조한 30년물 입찰 수요 등으로 상승
독일은 금리 동결 의사 확인된 ECB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등으로 2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421.0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23.0원, 1.62% 상승). 한국 CDS 약보합

		10/9일	10/8일	전일대비			10/9일	10/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35.1	6,753.7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4.14%	4.12%	+2bp
	유럽	571.31	573.79	-0.43%		독일	2.70%	2.68%	+2bp
	중국	3,934.0	휴장	+1.32%		영국	4.75%	4.71%	+4bp
	일본	48,580	47,735	+1.77%	CDS 5y	한국	24bp	24bp	-0bp
	한국	휴장	휴장	-		중국	41bp	40bp	+1bp
환율	달러지수	99.54	98.92	+0.63%	위험 지표	EMBI+	-	290	-
	유로화	1.1564	1.1628	-0.55%		VIX	16.43	16.30	+0.80%
	엔화	153.07	152.69	-0.25%		WTI유	61.51	62.55	-1.66%
	위안화	7.1300	휴장	-0.11%	원자재	구리	512.3	509.5	+0.56%
	원화	휴장	휴장	-		금	3,976.9	4,042.0	-1.6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중국과 미국産 대두 수입 논의 계획.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産 대두의 對中 수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아울러 양국 간 통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규모의 중국産 제품 수입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
- 반면 중국 상무부는 전략 광물인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통제에 대한 결정' 등을 발표. 이는 기존에 당국이 지정한 희토류 수출허가증 적용 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통제 대상임에도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사용되던 중국産 희토류와 관련 기술 차단이 주요 골자
- 또한 일부 시스템반도체 및 메모리반도체,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에 쓰일 희토류 수출 신청, 잠재적으로 군사 목적의 사용이 가능한 AI 관련 희토류 수출 신청도 개별 심사한다는 내용이 포함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국의 반도체 및 AI 관련 핵심 소재 통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 또한 美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등의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분석
- 한편,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25 회계연도를 보다 낮은 수준의 GDP 대비 부채비율로 마감했다고 발언. `26 회계연도 역시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첨언
- 상무부는 Nvidia에 대해 對UAE 반도체 수출을 승인. 그 동안 당국에서는 UAE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해당 수출을 금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연내 추가 금리인하 지지. 노동시장 동향 주목

-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연율)이 2%를 넘어선 후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고용 둔화 위험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지지한다고 언급. 다만 고용 둔화가 반드시 경기후퇴가 다가온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

■ JP Morgan 다이먼 회장, 향후 미국 주가의 큰 폭 조정 발생할 가능성

- 미국 증시가 향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큰 폭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 특히 지정학적 긴장, 재정 문제, 세계적인 군비 증가 등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지적. 또한 인플레이션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라고 언급

■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1단계 서명. WTI 등 주요 유가는 하락

-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일시 휴전, 일부 병력 철수,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휴전 합의 1단계에 서명. 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첫 단계로 평가. 이를 반영하여 WTI 11월물 선물가격은 전일비 하락(61.51달러, -1.66%)

■ ECB,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 영란은행 맨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 높다고 평가

-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역내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감안할 경우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고 분석. 한편, 영란은행의 맨 위원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으며, 이에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보다 장기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중국 국경절 연휴 여행지출, 전년비 증가. 다만 일부 세부 항목은 다소 부진

- 교통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1~8일) 기간 이동인구는 24.3억명으로 전년비 6.3% 늘었고, 총소비지출도 4.5% 증가. 다만, 로이터는 여행 1회당 평균 지출이 전년비 0.55% 감소한 911.04위안이라고 보도. 이는 '22년 이후 최소.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상승에 의한 소비증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

■ 일본 자민당 총재, 엔저는 수출기업에 도움. 다만 과도한 엔저 유도는 반대

- 다카이치 총재는 일반적으로 엔저가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제공한다고 발언. 다만 과도한 엔저를 유발할 생각은 없다고 부연. 아울러 특정 수준의 환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1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1년 및 5년 기대 소비자 인플레이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각국 중앙은행, 공급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 지속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need to learn lessons about supply shocks)

- 그 동안 중앙은행들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정책 대응에 소극적. 하지만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며 공급 측면 요인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영향. 영란은행에 따르면, 공급 충격의 지속 여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에 달려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3~4%에 이르면 가계·기업의 민감도가 크게 증가
- 특히 생필품 가격 변동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즉시 자극하며,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이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맞물려 임금과 서비스 물가 상승이 심화. 아울러, 기후변화와 경제파편화 등으로 공급 충격은 향후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 각국 중앙은행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

■ 미국의 '25 회계연도, 관세부과 등에도 재정부채 우려가 여전함을 시사 - WSJ

(Tariffs Are Way Up. Interest on Debt Tops \$1 Trillion. And DOGE Didn't Do Much.)

- 9월말 '25 회계연도가 종료된 가운데, 해당 기간 재정적자 개선 여부에 관심이 고조. 전년비 2배 이상의 관세부과(약 1,950억 달러)는 세수 증가에 일부 기여했으나, 소득세 비중(51%)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3.7%)을 감안하면 실질적 기여는 적은 편
- 또한 이자비용이 세수의 20%에 이르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이 1조달러 돌파. 트럼프 정부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정부효율성부를 신설했으나, 재정지출은 오히려 전년비 550억달러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의 지속 확대 등도 재정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 미국 연말 쇼핑 시즌 관세, 소비자가 아닌 소매업체가 부담할 전망 - 블룸버그

(Who's Going to 'Eat' Tariffs? Not US Shoppers)

- 기업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연말 3개월 동안, 관세 부담이 상당했던 소매업체들은 비용 증가분의 소비자 전가에 나설 가능성. 하지만, 소비자들은 다음의 이유로 관세 부담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 첫째,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 소지. 둘째, 노동시장 약화와 임금 성장 둔화 등이 소비자 지출 감소 유도할 우려
- 셋째, '22년 물가 급등 경험으로 형성된 지출 노하우(PB 제품 소비, 할인점 이용)가 재현될 가능성. 넷째, 단체 문자나 AI 검색 엔진을 활용한 할인 구매(공동 구매 등). 다섯째, 가격 상승 품목을 대신하는 대체품 구매. 여섯째, 대기업의 특별 할인 행사 이용. 이에 관세 부담의 소비자 전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금 가격 상승,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화 등을 시사 - WSJ**

(Gold Rally Points to Eroding Faith in Central Banks Worldwide)

- 금 가격은 다수 중앙은행의 매입 증가 및 트럼프의 무역전쟁 등으로 오랫동안 상승세 지속. 또한 대중영합주의에 기반을 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등으로 인한 재정부채 증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저하 우려 등도 금 가격 랠리에 일조
- 이에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각국의 통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금 투자에 더욱 집중하는 ‘脫화폐 거래(debasement trade)’가 활성화. 아울러 인플레이션 여파로 명목 GDP 성장을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요국의 재정부채 심화 가능성도 거론. 이 또한 금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

■ **미국 증시 콜옵션 강세, FOMO 심리를 반영하며 닷컴 버블 전 과열과 유사 - Reuters**

(Fear of missing out trumps other worries as euphoria grips US stock options traders)

■ **글로벌 자유무역, 미국의 관세 예외 적용과 각국의 다각화 시도 등으로 지속 - The Economist**

(Why Donald Trump's tariffs are failing to break global trade)

■ **미국 H-1B 비자, 개혁 필요하지만 고액 수수료 부과는 본질을 빗나간 해법 - 블룸버그**

(\$100,000 H-1B Visa fees distract from real reform)

■ **중국 정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따른 위안화 역할 축소 우려 - 블룸버그**

(US Stablecoin Dream Is a Nightmare for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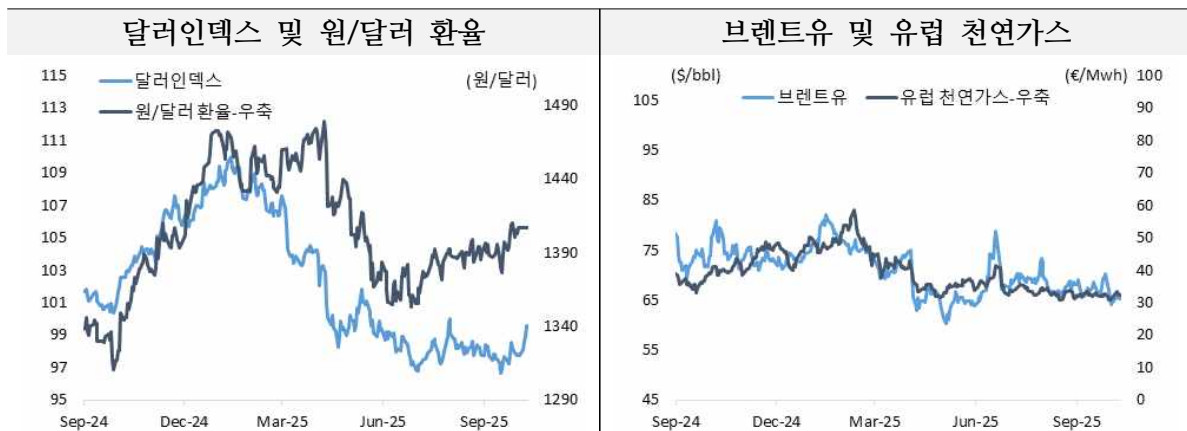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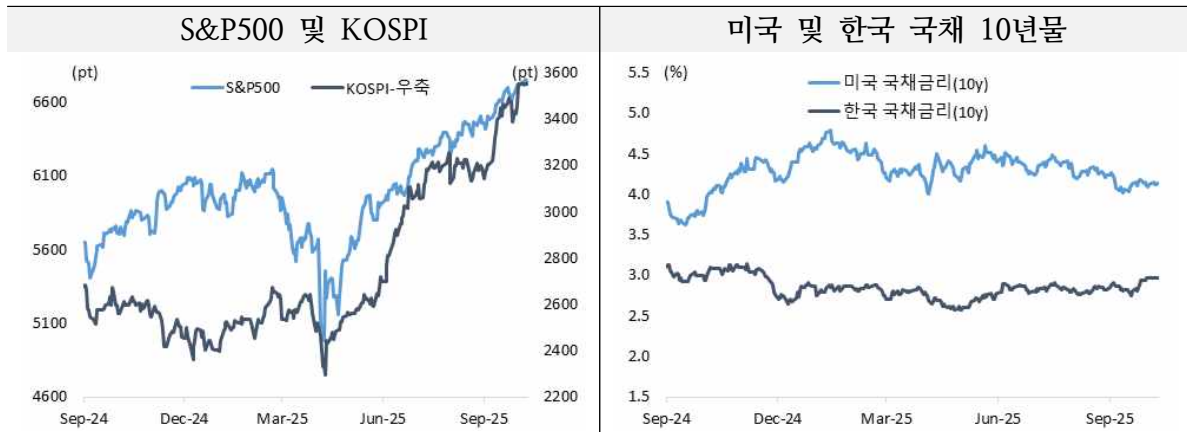
■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첨단 및 친환경 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능 - 블룸버그**

(Why Rare Earths Are China's Trump Card in Trade War With US)

■ **차기 일본 총리, 물가안정과 성장촉진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Financial Times**

(Japan's next PM needs Takanomics, not Abenomics)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